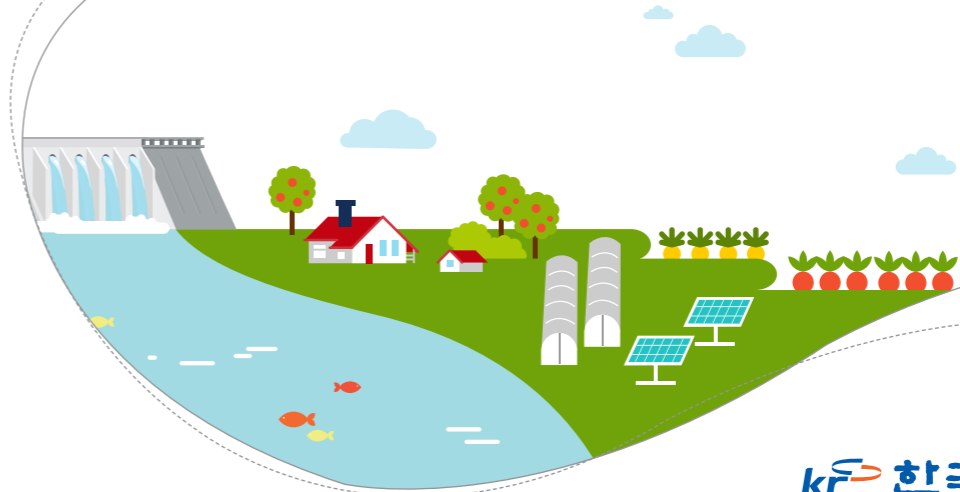


2018
지속가능경영 이행보고서

2018 지속가능경영 이행보고서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2018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018 지속가능경영 이행보고서
2018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홈페이지 <http://www.ekr.or.kr>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담당부서 경영혁신실
이메일 lordmin@ekr.or.kr
전화번호 061-338-6583

About This Report

보고서 의의

한국농어촌공사의 2018년 UN Global Compact COP(Communication On Progress)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COP는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간 및 범위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개년 동안의 활동사항이며, 정량적 성과의 경우 3개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추세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범위는 공사의 국내·외 전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COP는 본사와 3원, 지역본부, 지사, 사업단을 포괄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수준 및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하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COP는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상세 내용들이 작성되었습니다.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 환경책임경제연합과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제작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추가정보 및 문의처

본 COP의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www.ek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COP의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담 당 자 지속가능경영 담당자
 전화번호 061-338-6583
 팩스번호 061-338-5189
 이 메 일 lordmin@ekr.or.kr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UN차원의 국제 협약인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2007. 8	UN Global Compact 가입
2009. 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초 발간
2011. 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회 발간
2012. 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회 발간
2013. 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4회 발간
2014. 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5회 발간
2015. 11	제3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수상
2015. 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6회 발간
2017.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7회 발간
2018.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회 발간
2019. 1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9회 발간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CONTENTS

CEO 메시지	01
하이라이트	03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05

상임이사가 꿈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미래	07
정규직 전환이 갖는 의미	09

한국농어촌공사 소개	11
주요사업 Overview	13
이해관계자 참여	15
지속가능경영전략	17

농어촌애안심사회	19
사람존중	20
안전우선	22
윤리책임	24

농어촌애상생경제	27
경쟁력 강화	28
일자리 창출	30
상생협력	32

농어촌애쾌적환경	35
물애가치	36
땅애가치	38
녹색성장	40

농어촌애행복문화	43
행복충전	44
지역활력	47
소통채널 확대	49

UN Global Compact 원칙 이행	52
-------------------------	----

Appendix	53
수상실적 및 단체가입 현황	53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관한 데이터	55

CEO 메시지



「농어촌愛GREEN가치」를
슬로건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 효율, 성과, 경쟁 등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며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청년실업, 소득불균형,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국가 운영 방식에서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사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특화된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차별화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018년 4월 1일 ‘사회적가치추진단’을 신설하여 사회적 가치 관련 총괄 기능 수행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부처, 학계,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가로 ‘국민과함께다가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의 선정, 추진상황 및 성과점검 등 단계별로 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비전인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 가치 실현’을 위해 「농어촌愛GREEN가치」를 슬로건으로, 안심사회, 상생경제, 쾌적환경, 행복문화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 홍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확대와 지역인재 고용 통한 사회통합, 일과 삶의 균형, 근로환경 개선 등 인권 보호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맞춤형 농지은행 서비스 제공 및 청년 창업 지원, 고령농 농지연금 지급, 미래형 스마트팜 벨리 육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역생산물 구매 등 상생협력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환경복원사업 등 건강하고 깨끗한 농어촌을 조성하였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행복한 농어촌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인 행복키움-가꿈-나눔 활동으로 소외된 지역 농어민의 복지향상,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찾아가는 고객센터, 농정 거버넌스 활동 등 소통채널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 공동체 복원,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현안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러한 공사의 노력이 농어촌의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하이라이트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1 농어촌애안심사회

- **사람존중**
비정규직(191명) 정규직 전환 완료, 안전관리체계(KOSHA 18001) 운영, 인권경영체계 구축
- **안전우선**
가뭄피해 없는 영농 실현, 저수지 591개소 중 551개소 내진 보강 완료
- **윤리책임**
청렴도 평가결과 3등급 달성(1등급 향상),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2 농어촌애상생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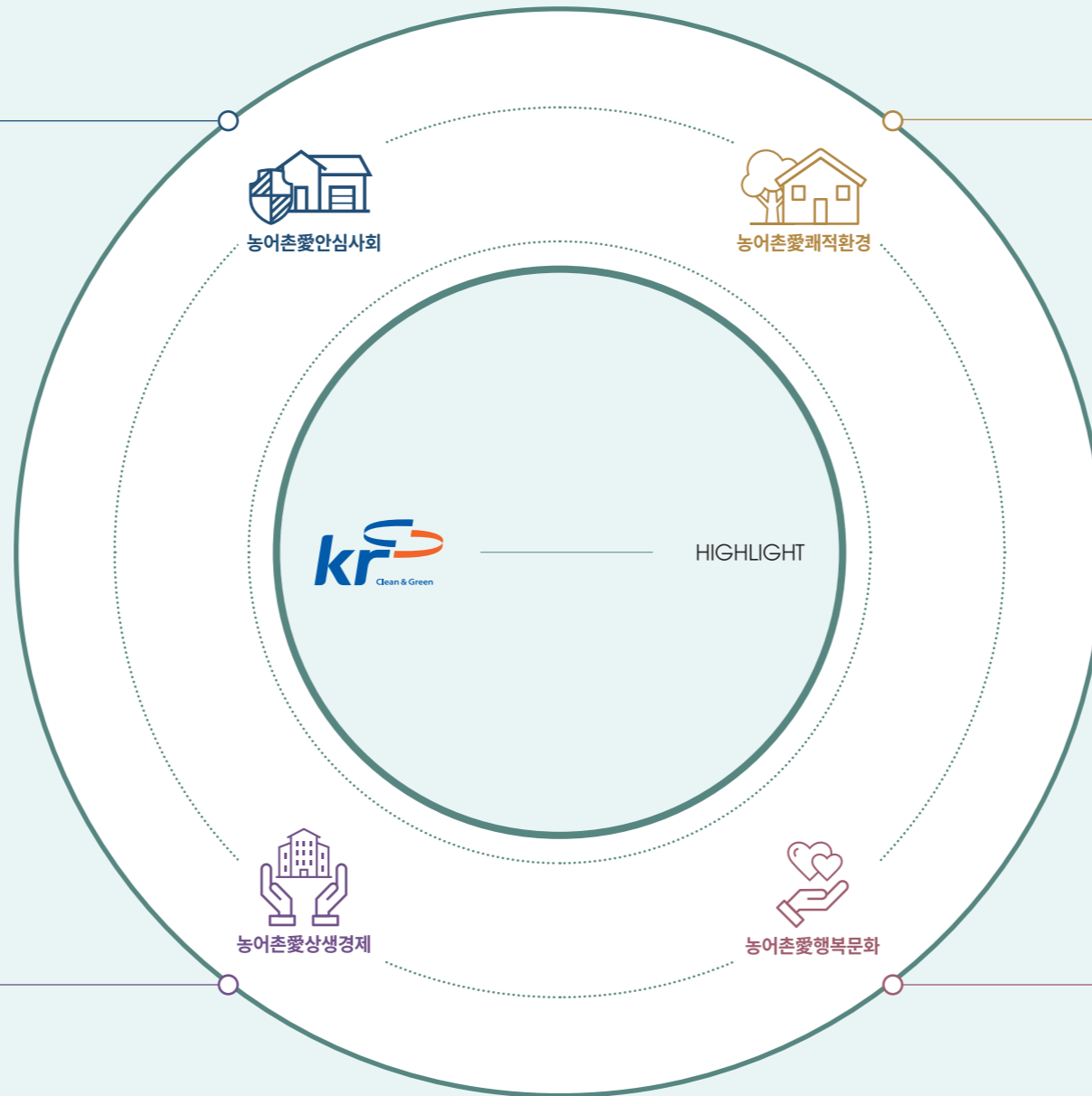
- **경쟁력 강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농어촌마을 매출액 증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4지구 조성
- **일자리 창출**
2년 동안 629명 신규 채용, 2030 청년농 3,816명에게 3,509ha 농지지원
- **상생·협력**
농업 관련 기관 간 사회적 가치 공동 추진, 공사 보유기술에 대해 민간 전수

3 농어촌애쾌적환경

- **물애가치**
물관리 과학화, 지하댐 개발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
- **땅애가치**
도시화로 훼손된 저수지 생태환경 복원, 개도국에 농어촌개발기술 및 경험 전파
-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 새만금 5공구 방풍림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

4 농어촌애행복문화

- **행복증진**
농지연금 지원, 행복증진활동, 무상공유 등을 통한 체감형 복지 제공
- **지역활력 증진**
농촌공동체 회사 육성·지원,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 **소통채널 확대**
농지은행 통합포털 개편, '스마트보상시스템' 일하는 방식 부문 개선



상임이사가 꿈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미래



이종욱 부사장 겸
경영지원·농지관리이사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전념할 것

농어촌의 미래와 공사의 경영혁신이라는 당면과제 앞에서 부사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소통·협력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전반에 남아있는 적폐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은행사업은 청년농 육성, 경영위기농가, 고령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 등 기존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념하겠습니다.

변화와 도약의 시기, 6천 임직원과 함께 농어민이 행복한 농어촌,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주 기획전략이사

공사의 지속가능한 미래상 정립을 위해 노력

공사의 미래와 6천여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지만 상임이사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사는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일상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많은 민간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에 둔 지속가능경영 전반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공사에 39년 동안 재직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공사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의 인력운영,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춰 전환하고, 공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예산확보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경영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고,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협력사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낮고 겸허한 자세로 항상 직원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강병문 기본조성이사

미래형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조성·관리하는 막중한 소명을 이행하는 기본조성이사로서 공사가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어민들이 가뭄과 수해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논에도 발작물과 식량작물 생산이 가능한 복합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존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영농편의를 위한 미래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고도화하여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병문 기본조성이사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안정영농을 위해 노력할 것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안정영농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뿐만 아니라 지역 간 물잇기, 지하댐 개발 등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화하고, 지역별 극심한 강수량 편차 및 대규모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내진보강,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염해피해 및 수질악화 등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청정 용수공급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수지, 수로 등에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물의 도달시간과 농경지마다 공급되는 물의 양을 분석하고 저수율 등 다양한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여 수혜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에 최선

최근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과소화마을 증가로 인해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특히公社 신성장 동력인 어촌·수산·해양 분야의 미래가치 창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대학을 비롯한 학계, 외부 전문가 및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公社의 활동영역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갖는 의미

본사에서는 청소원, 경비원, 안내원, 전산입력원 등 공무원으로 분류된 모든 직종에서 25명의 인원이 근무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였던 전산입력원 6명과 경비원 5명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공무원 전환을 완료하였고, 용역 근로자로 근무 중인 청소원 12명과 안내원 2명은 2018년에 공무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금관리처 신정연 사원

단절되었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농지보전 부담금 시스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인 저에게 다시금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에 지장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사번을 부여받고 공사의 직원이라는 증표인 사원증을 처음 받는 날. 나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일원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제 업무에 대한 애정도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처 오정희 사원

재계약 걱정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 좋아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서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공무원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서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재계약에 대한 걱정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힘도 납니다. 직원분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경영지원처 노세이 사원

나의 회사라는 소속감이 생겨

맞고대 형태로 근무하면서 출입자 통제, 청사 재난 예방 및 감시, 내방객 안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전환 이전에는 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분이었다면 지금은 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제일 크게 바뀐 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직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처 정은지 사원

공무원 전환 소식에 가족들이 더 기뻐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청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안내 및 전화연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환이 된다는 소식에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가족들이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이제 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사 내방객이 처음 만나게 되는 공사의 얼굴로서 공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개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설립 이후 한 세기가 넘는 동안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어업인과 함께해왔습니다.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 확보와 관리 등 국민과 농어촌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어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업 연혁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전북옥구서부수리조합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차례의 통폐합과 명칭 변경을 거치면서도 주식인 쌀자금을 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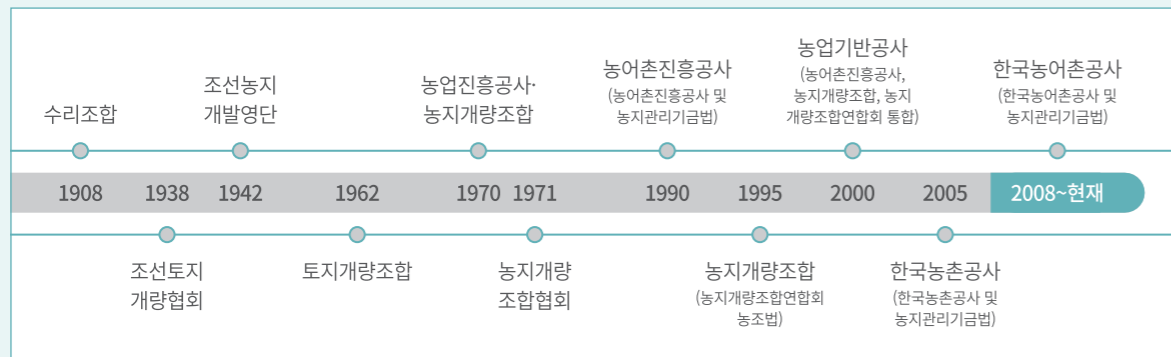
2000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고, 시대적 흐름과 공사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사 전경



주주현황

대한민국 정부 100%



설립목적 및 임무

설립목적(공사법제1조)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회사명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자	김인식
설립일자	1908년 12월 8일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본	20,807억원('18년)
매출액	37,165억원('18년)
임직원수	6,591명('18년)
본사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조직 및 인력

조직

(본사) 5이사, 3본부, 24처실, (지방) 3원, 1본부, 9지역본부(81지사), 6사업단

인력

(현원) 6,591명 → 본사 1,049명, 지방 5,542명

관리시설물 현황

총 논면적

89만 6천ha

공사관리 49만 9천ha(56%), 시군관리 22만 9천ha(25%), 농업인 직접관리 16만 8천ha(19%)

시설물 관리

13,911개소



주요성과

지(地) 농업생산기반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확장을 통한 농업생산공간 확대 및 쌀 자급화 실현 - 간척을 통해 106천ha(여의도면적의 380배, 전국토의 1.1%)의 새로운 국토 개척 - 일반 경지정리 완료, 대규모 경지정리 등 체계적 생산기반 구축·관리
수(水) 수자원 개발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 및 재해 대응력 확충 - 전체 논 896천ha 중 10년 한발빈도 수리안전담 60%(546천ha) 확보 - 시설 현대화로 농경지 상습침수 피해 해소(논 303천ha 중 60&인 181천ha)
인(人) 농어촌지역 가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으로 농가 경쟁력 및 소득 향상 - 호당평균 6ha 수준 쌀전업농 육성(전체 벼 재배면적 55% 담당) - 경영위기 9,455농가에 회생기회 제공, 고령농에게 2,339억원 농지연금 지원
촌(村) 농어가 소득 및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지원으로 농어촌 활력증진 - 일반농산어촌개발(1,102권역) 추진으로 농어촌 정주여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관광상품 개발 지원 등 농촌체험마을(1,002개소) 활성화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

주요사업 Overview

농업생산기반정비

Overview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대구혁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사업 등으로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하여 농업특화단지 개발 등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Opportunity

재해에 안전한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주곡 쌀의 자급률은 실현됐으나 쌀 이외의 작물의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프라 구축 수준도 미흡하므로 쌀중심에서 경제작물 등으로 재배작물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모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Outlook

재해안전 농경지가 늘어나고 원예작물 및 경제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등 다기능 미래 복합영농 기반시설로 정비될 것입니다.

대구혁경지정리사업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통수식



재해안전종합상황실



창업농 지원



귀농·귀촌 지원



농촌생태 체험



어촌개발사업



해외사업



Opportunity

농가인구 감소 및 농업인 고령화 확산에 따라 후계농업인이 부족하고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정체 등 농가경영 문제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Outlook

쌀전업농 육성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2030세대, 창업농 등 신규 진입농을 육성하고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강화와 고령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지급 등 생애주기 맞춤형 농지지원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개발

Overview

농촌마을 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방문객 유치확대와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노력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Opportunity

귀농·귀촌 및 귀어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의 자생적 발전과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어 6차산업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Outlook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해양분야에 대한 사업수주 등으로 지역개발 역량이 향상될 것입니다.

농어촌용수관리

Overview

총 면적 499천ha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에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청정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저수지 등 노후시설물을 보강하고 있으며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강화 및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pportunity

용수관리를 위해 노동집약적 사업구조로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 대다수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와 강수량 중심의 용수관리로 수질관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Outlook

계측과 분석 기반의 과학화된 물관리, 수량·수질의 종합적인 용수 서비스 제공 및 수리 시설물 재해대비능력 강화로 국민과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용수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농지은행

Overview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젊은세대, 귀농인 등에게 농지를 지원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영회생지원과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자체투자

Overview

해외사업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수자원 개발 등 기술을 수출하는 해외기술용역사업과 인적교류를 통한 기술 이전 및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소수력, 풍력 등의 청정에너지 지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국가에너지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pportunity

민간기업과의 해외동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도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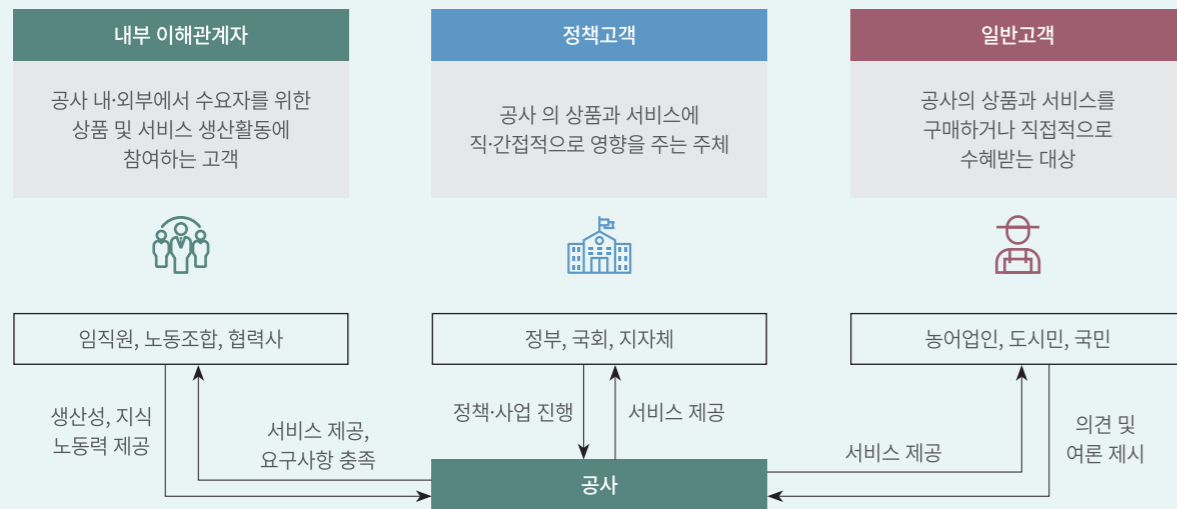
Outlook

민간공동진출사업 수주가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모델이 정착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란 공사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서비스의 가치 창출 활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체를 의미합니다. 공사는 사업수행, 의사결정과 활동상황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이해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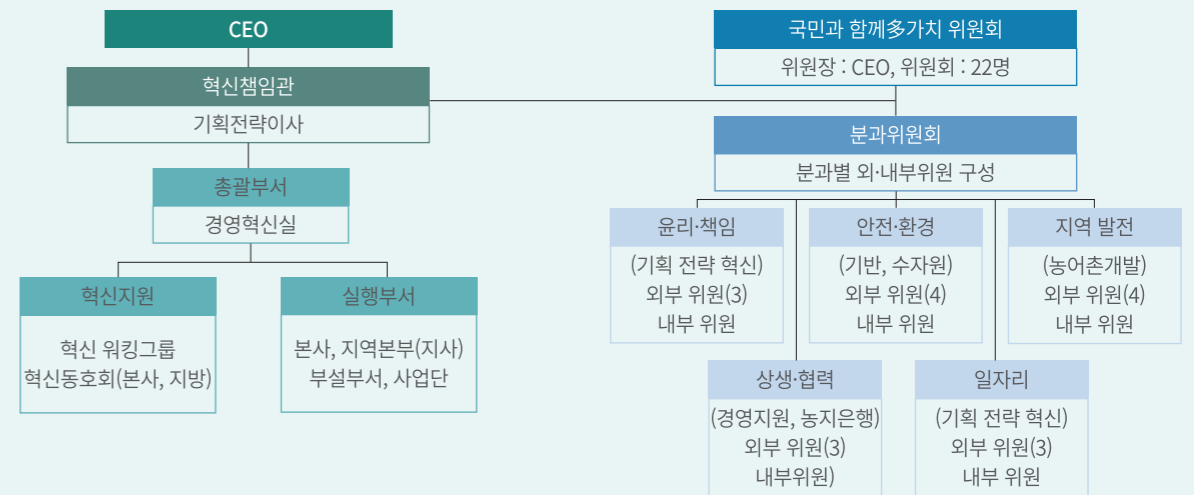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기
임직원, 노동조합	현장경영, 경영간담회, 업무보고	수시
	노사협의회	분기
협력업체	협력업체 간담회, 청렴도 조사 공익신고제도	수시 또는 필요시
농어업인(사업대상), 농어촌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고객방문, 사업설명회	수시 또는 필요시
	VOC 수집	수시
국회, 정부, 학계/전문가, 농어업인단체	정부회의, 대외 업무보고, 직원파견, MOU	필요시
일반국민, 지역사회, 학교 및 NGO	경영공시, 대중매체홍보, 사회공헌활동	수시 또는 필요시

사회적가치 추진을 위한 ‘국민과 함께 다가치(다같이) 위원회’를 신설하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고객인 농어민,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가치 추진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기존사업과 신규과제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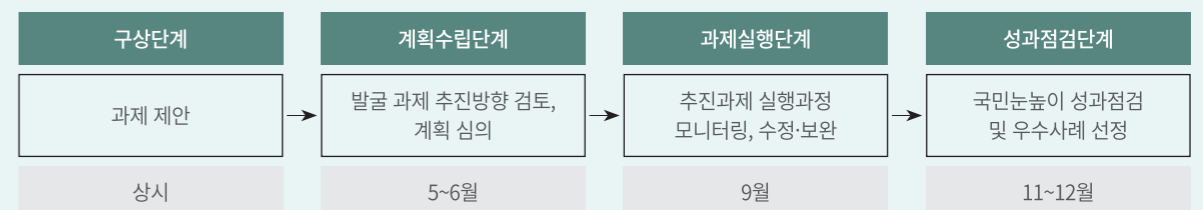
사회적가치 추진 조직도



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	구성	주요 내용
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관 : 기획전략이사 부책임관 : 경영혁신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 과제 발굴 및 실행 과정 점검 등 혁신 업무 총괄 혁신조직(국민과 함께 다가치 위원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혁신 총괄부서 및 실행부서 등) 운영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부서 : 경영혁신실 실행부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28), 부설부서(3), 지역본부(9), 사업단(8), 지사(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전략 수립, 점검, 실행계획 수립지원, 위원회 운영 및 평가대응 총괄 등 과제 발굴, 실행계획 수립·보완, 실행, 모니터링 및 환류
전담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워킹그룹 - 혁신동호회(본사,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발굴, 과제 실행-점검 참여 및 공감대 형성·확산 지원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경영전략

한국농어촌공사는 글로벌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공사만의 특화된 가치창출을 목표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속가능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

사회적가치 비전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 가치 실현			
목표	지속가능한 농어촌 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슬로건	농어촌 ^愛 GREEN가치			
핵심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문화적 가치
핵심전략	농어촌 ^愛 안심 사회	농어촌 ^愛 상생 경제	농어촌 ^愛 쾌적 환경	농어촌 ^愛 행복 문화
세부전략	사람존중 안전우선 윤리·책임	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 상생·협력	물 ^愛 가치 땅 ^愛 가치 녹색성장	행복충전 지역활력증진 소통채널 확대

핵심전략 연계

핵심테마	세부테마	세부분류
농어촌 ^愛 안심 사회	인간존중	인권보호
	안전우선	안전
	윤리·책임	보건복지
농어촌 ^愛 상생 경제	농어촌 경쟁력 강화	노동권 보장
	일자리 창출	사회약자배려
	상생·협력	상생·협력
농어촌 ^愛 쾌적 환경	물의 가치	일자리 창출
	땅의 가치	지역사회활성화
	녹색성장	지역경제 균형발전
농어촌 ^愛 행복 문화	행복충전	기업 윤리·책임
	지역활력증진	환경 지속가능 보전
	소통채널 확대	시민 참여

* 세부분류: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3조에서 나열한 12개(기타 제외)의 분류로 사회적 가치란 각각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농어촌愛 안심사회

01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및 보호,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 사람존중 -



- 안전우선 -



- 윤리책임 -



사람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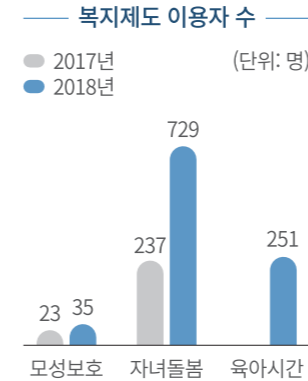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처우개선과 개인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조직에 대한 만족도 증가와 업무능률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적합 직무 부여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95명, 2018년에는 용역근로자 96명 비정규직 총 19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였고, 공무원 직군 신설과 별도 정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년은 65세로 일반직원(60세) 대비 상향하였으며, 임금은 전환이전 보수 및 기존 직원의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복지수준은 기존 직원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복무제도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우리나라는 OECD 최장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저출산, 과로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과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고, 임신·출산·육아 등 특정시기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기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정하고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자녀와 관련된 학교행사, 교사상담, 병원 진료 시 자녀돌봄휴가를 제공하고, 만5세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도 220㎡ 증축하여 정원이 81명에서 99명으로 늘어 대기인원을 해소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공사의 노력으로 2010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 협력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

수습사원, 공무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수준 향상 등 주요현안 사항별 노사가 협의체에 참여하여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노사관계, 신뢰적 노사관계, 소통적 노사관계, 합법적 노사관계 등 4대 협력과제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직원 반발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사합동설명회를 10회 실시하여 '성과연봉제 확대 성과급 반납'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고, 반납한 성과급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단체협약 갱신, 근로조건 개선 등 노사갈등요소를 분석하여 갈등유형별 대응방향 체계를 정립하였고, 단체협약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간 주요현안사항 공유와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권, 안전권 보호 강화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안전관리체계(KOSHA18001*) 운영으로 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관리 부적합 사항 발견시 공사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콜센터’를 신설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수준 제고를 위해 주요 안전수칙, 사고다발 위험공종 등 건설안전 필수 지식을 ‘안전지식 나눔 스티커’로 제작하여 개인 보호장구와 현장사무소에 부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 건설재해현황을 분석하여 3대 위험공종(거푸집, 관부설, 철근작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취약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의식 개선 등 안전관리 역량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구분	주안점	18년 조치실적
해빙기 점검(2~3월)	봄철 지반과 시설물 약화 등 안전점검	647지구, 598건
우기대비 점검(5~6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 점검	699지구, 609건
종합점검(11~12월)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품질점검	556지구, 513건
불시점검(수시)	위험공종 시공현장과 안전사고 발생현장	67지구, 99건

*KOSHA18001 :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잠재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건설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성원 역량 개발 및 향상

공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KRC IN입니다. 바로 직무전문성(Knowledge)을 갖추고 고객을 존중(Respect)하며 협업(Cooperation)과 소통을 내재화(IN)한 인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재상 실현을 통해 글로벌 공기업들 선도할 최고의 인재 육성은 물론 세계적 인재 육성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원하고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재육성 교육체계를 꾸준히 개편해 나가고 있으며, 주력사업 직무 교육 체계 구축과 직무역량 교육 과정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여 전문가 및 핵심인재 양성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수요자에게 필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교육과 인사관리 연계를 제도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초청연수 및 현지 연수 등 국제교육을 확대하고 다각적 교육수요 창출을 통해 정보지식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권경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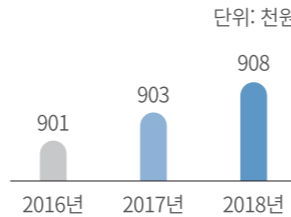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보호를 위한 인권경영시스템을 2018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인권경영현장과 인권경영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인권경영실천의지 제고를 위해 인권경영 및 갑질근절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권경영 정책 실행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2018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1인당 교육예산



인권경영 선포식



안전우선

한국농어촌공사는 재난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영농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



재해취약 농경지 해소를 위한 안심 농업환경 조성

국지성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주요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용수공급 현황 모니터링 및 그동안 축적된 물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수 확보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저수 용량 확대를 위해 토사 퇴적으로 용수확보 능력이 저하된 전국 54개 저수지에 준설을 실시하여 233만톤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용수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 평야부 등의 주수원공이 고갈될 경우에 대비해 인근 하천의 여유수량을 활용한 물잇기(7개소), 지하수 관정 개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재해안전 농경지 42,000ha를 확보하고 농가 약 27,000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저수지 응급복구완료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능동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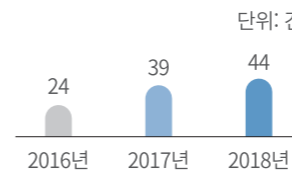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과 손잡고 기관별로 산재된 수자원 공유를 통해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동 대응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73년 이후 역대 최저강수량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가뭄피해없는 영농을 실현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상호 용수확보 대책 지원	환경부 - 농업용수에 지하우너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양제(공사)→평림댐(수공): 용수 공급 (1만m³/일) 다목적 댐(수공)→저수지(공사): (9.5만m³/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저수지(용인) 하류부 지하수 공급 (100m³/일) 하수처리장 21개소 방류수를 농업용 활용 (18만m³/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전남 등 지자체 가뭄 심각 71개소 (7,172ha) 공사에서 농업용수 급수지원(2,289만m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호호(공사)에서 국가기간산업단지 (대산입해)에 용수공급(9.7만m³/일), 피해(466억원/일)발생 예방
지자체 관할 가뭄발생 지역 급수지원	민간기업- 용수공급 지원

안전점검진단 차량



자체 시설물 점검 실적



찾아가는 시설물 점검 119센터 운영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긴급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76개소(지자체 44, 공사시설 32) 저수지, 배수장, 교량 등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 요령 교육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는 역량강화 지원과 지역별 안전진단기관과 합동 긴급점검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예방능력 고도화 및 내진성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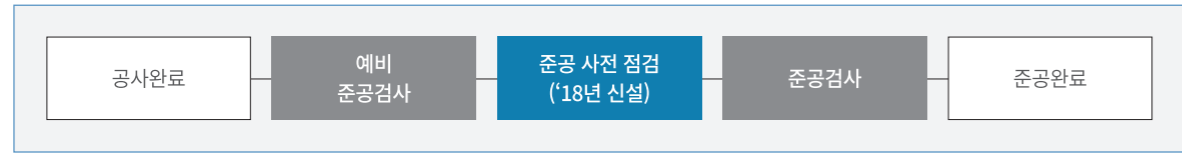
저수지 등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내진보강 조기완료, 철저한 시설물 안전검증을 통해 재해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규모 5.4의 포항 지진과 기후변화로 심해진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 위험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기반시설 602개소의 개보수에 5,043억원을 투입하였고 공사 관리 저수지 3,403개소 중 70%가 준공한지 50년 이상되어 노후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적기에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지고 있는 지진위험에 대응해 저수지의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내진설계 의무 대상저수지 594개소 중 551개소의 내진설계 시공과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진 미보강 저수지 43개소에 대해서도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예정지구 사전점검 도입으로 시설물 품질, 안전 강화

준공 완료 전, 예비준공검사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준공 사전점검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전문성을 가진 제3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농업기반시설 준공예정지구 247개소에 대한 준공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준공 이후 안전문제와 관련된 주요 구조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안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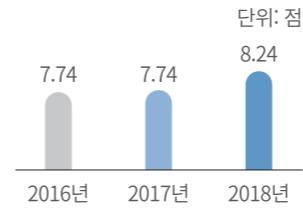


구분	주요 점검대상 및 항목
생산기반	농촌용수 • (저수지) 제방, 여·방수로, 취수시설(취수탑 및 취수터널) • (양수장) 흡입 및 배출수조, 기계·전기설비, 건물 등
	배수개선 • (배수장) 흡입 및 배출수조, 기계·전기설비, 건물 등 • (평야부) 배수문, 배수로(간선), 농로 등
대단위·간척	• (방조제) 제방, 피복석, 방조제 도로, 배수갑문 및 조작실 • (내부개발지) 배수문, 도로, 수원공(양수장 등), 용·배수로(간선)
개보수	• (재해대비) 보수·보강 공종 점검 (제방,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 • (영농편의) 보수 공종 점검 (개거, 수로관, 수로터널, 잠관, 수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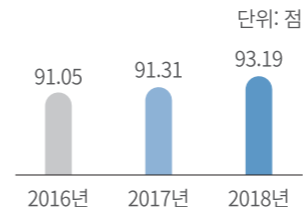
윤리책임

한국농어촌공사는 3C(윤리규범, 감독조직, 조직의 공감대 형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청렴과 신뢰의 Clean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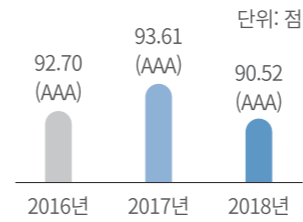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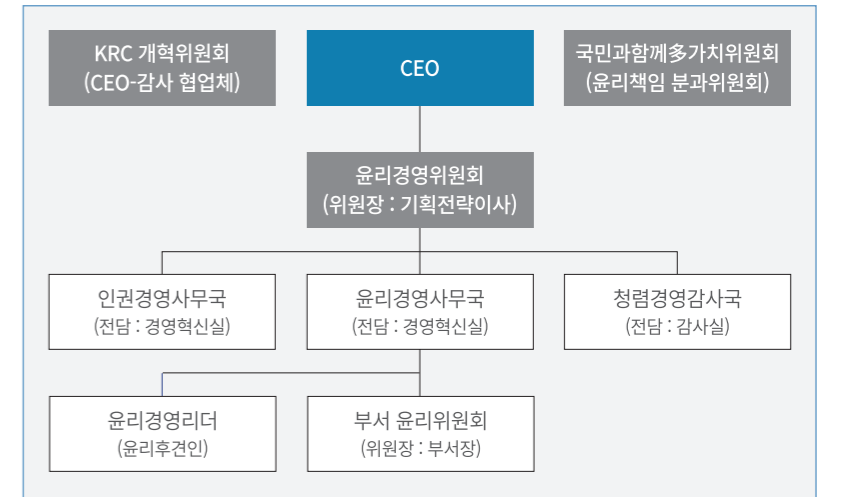
윤리의 날 행사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부패유발요인 정비

공사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8년에 CEO-상임감사 협업체인 「KRC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묵은 관행적 업무처리와 부정위험요인을 18건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2017년도 청렴도 부진원인인 외부청렴도 및 정책고객에 대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금품비위자 직위해제 조치, 금품·향응·수수 행위시 승진포인트 감점 등 규정을 강화하였고,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 수의계약시 퇴직자영입확인서 징구 조항 신설 등 퇴직자에 대한 특혜배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운영중인 부정위험진단제도를 통해 사업현장의 다양한 부정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도 종합 청렴도 결과 전년대비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달성하였고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임직원 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상시 청렴분위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의 청렴교육을 매년 의무교육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적시성 있는 청렴윤리 정보 제공을 위한 윤리소식지(청자생존)을 매월 발간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전용 창구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률 해설 및 업무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직무 관련자의 청탁금지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부서장, 부서장 배우자, 계약업체 관계자에게 청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레드휠슬」, 「청렴신문고」 등의 공익신고 채널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KRC 윤리의 날(6.2)을 기념하여 2017년에는 청렴화분을 배부하고 2018년에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에피소드 위주의 청렴연극을 통해 즐겁게 체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불공정 거래관행 및 갑질행위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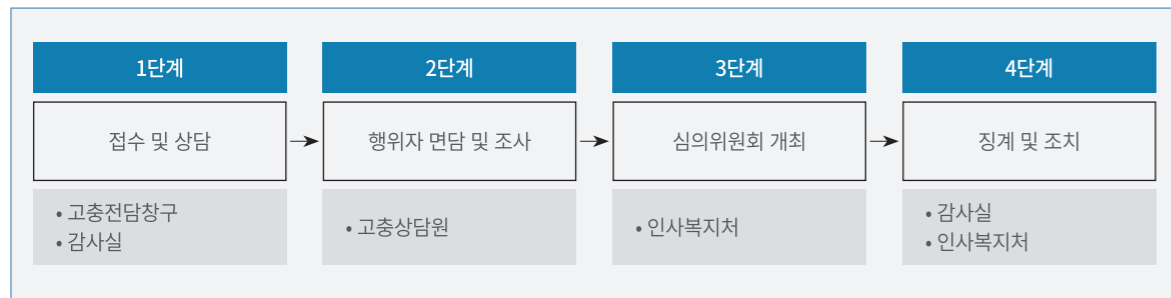
2018년에는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강화를 위해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최대 80%까지 확대 시행하였고, 대금지급기한 단축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임금체불 방지와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각종 대금과 임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조달청의 '하도금지킴이' 시스템 등 전자정보체계 활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급자의 부당한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및 지연 등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첫걸음·창업기업에 납품실적 및 신용평가 시 만점을 부여하고 지체상금율을 50% 감액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배점한도 상향 등 우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법정 우선구매비율(1%)을 초과한 3.43%를 달성하였고, 보건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매년 연간 1회, 4시간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성희롱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등의 2차 피해를 막는데 중점을 두는 주체별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규정 내 성(性)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형 기준을 감봉이상에서 정직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사회형평적 채용을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및 광주·전남 이전지역 인재, 고졸자 등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농어촌전형을 40% 시행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채용도 10%에서 18%로 강화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에게 가점 신설과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지역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고, 광주시 주관 광주청년드림사업으로 미취업구직자에게 인턴제 운영 등 지역 미취업청년을 위한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조달청과 업무협약 체결



미래로, 세계로, 기술로 농업을 든든하게,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편한 농업

가뭄, 호우에도 걱정 없는 농어촌용수 관리



이용체계 재편: 여유 수량 → 상습가뭄지역(전국 7개 지구)



스마트 물 관리: IoT 활용 원격 계측, 전국 단위 실시간 모니터링

◎ 미래형 농업

수요자 중심 생산활동과 첨단 농업 지원

다양한 농지활용

논 → 논 + 밭 + 원예

종합적 용수관리

수량 → 수량 + 수질 + 수온

스마트팜 조성

'22년까지 2,142억 투입

◎ 세계로 가는 농업

국내 농산물의 세계 식량(F)·에너지(E)·물(W) 시장 진출 선도



- 51년간의 해외 농업농촌 개발 노하우
- 국제적 공신력·네트워크



- ('11~'18년까지) 28개 해외사업에 민간기업과 함께 진출
- ('17년까지) 농식품부와 함께 29개국에 171개 기업의 진출·정착 지원

◎ 안전한 국민

저수지 안전 강화해 국민 생명·재산 보호

내진보강 조기 완료

미보강 43개소 '18년까지 준공

시설 안전관리

정밀점검 615개소
정밀안전진단 231개소

농어촌愛 상생경제

02

농어업 소득 증대, 농어업 소득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실험시설 공유 등을 통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의 토대를 만들어 갑니다.

- 경쟁력 강화 -



- 일자리 창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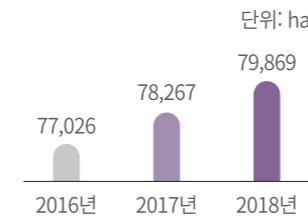
- 상생·협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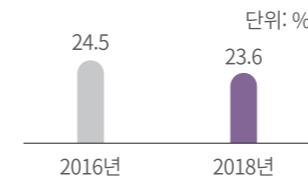
경쟁력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고령화에 대비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과 중소농이 농촌 정착에 성공하기 위한 안정적 농업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의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거래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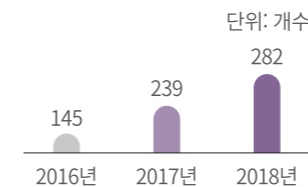
2018년 2030세대 지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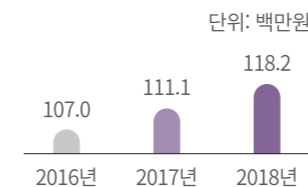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농어촌마을 사업지구 수



농어촌마을당 매출액



청년농 등에 대한 자원 확대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농촌의 주된 산업인 농업에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청년이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 정착에 성공하려면 안정적 농업 영위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농업에 진입한 청년농은 자금과 경험이 부족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농지를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창업농 육성과 2030세대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넉세대 농지지원사업'으로 2018년 지자체에서 선정한 청년 창업농 1,568명과 만 20~39세 청년 농업인에게 비축농지와 임대농지에 대한 매매자금을 연리 1%로 최장 30년까지, 임대차는 5년 이상 장기로 최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농지은행 전체지원면적 대비 2030세대에 대한 지원 비율을 2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경영규모 6ha 미만 중소농가가 전업농(6ha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기존 35천원/3.3㎡에서 생애첫농지취득에 한하여 45천원/3.3㎡으로 개선하여 자금력이 약한 중소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농지지원농가 210호를 6ha이상 전업농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어촌의 공동화에 대응해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과제입니다. 공사는 지역개발을 통해 도로, 상하수도,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기반과 체험시설, 특산물 가공시설 등 마을 소득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마을 고유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특화된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개발 사업추진 단계부터 사업 마무리 이후까지 제대로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확실히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시 운영관리와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설물 활용도 저하를 방지하고, 사업완료 마을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부진 마을에 대해서는 활성화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량있는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자문단을 운영하여 시·군단위 맞춤형 자문과 사업 진행상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지역개발 콜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 관광 콘텐츠 개발, 편의성 및 서비스 제고로 농어촌 관광의 가치를 높이고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농어촌 활력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농어촌 관광 모델 개발, 민간여행사 및 코레일 관광상품 지원, 유명리조트와 농어촌 관광자원 연계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을 찾는 방문객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스마트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을 국정혁신 8과제로 선정하고, 미래농업 핵심 성장을 위해 청년교육과 창업, 기술혁신 시설이 집적되어 청년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4지구, 180ha, 4,164억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경지, 인력, 생산비중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의 희망이자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년 선정 2지구(경북 상주, 전북 김제)에 대한 세부설계 완료(‘19.9) 후, 금년 내 공사 착수, ‘19년 선정 2지구(전남 고흥, 경남 밀양) 기본계획 수립완료(‘19.8), 승인 후 세부설계 착수예정으로, 2022년까지 조성완료 예정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모니터링, 컨설팅 등 전단계에서 내실화를 추진하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와 제품에 대한 발굴·육성은 물론 국내외 판로지원을 통해 6차산업 경영체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단순 제품소개 위주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스토리 기반으로 스마트콘텐츠를 구축하여 모바일 등 온라인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22개 경영체가 우체국 쇼핑몰에 신규로 입점하였고 매출액도 23억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생산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 비축 확대

공공임대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청년 창업농, 2030세대 등에게 장기 임대해 농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공사에서는 농지에 대한 기본 매입상한단가를 두고 있으며, 지역 농지 가격수준을 감안하여 가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 매입상한단가는 25천원/㎡으로 각 도별 단가도 고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부터 기본 매입상한단가를 27천원/㎡으로 올리는 한편 지역별 단가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축농지가 17년 703ha에서 18년 917ha로 30%이상 증가하였으며, 매입한 농지가 논일 경우 청년 창업농, 2030세대 등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들에게 타작물재배 조건으로 우선 임대될 예정입니다.

간척지에 농산물 생산·유통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에코팜랜드사업 추진

화옹지구 간척지에 768ha의 면적에 경기도,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축협 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복합영농단지인 에코팜랜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에코팜랜드에는 축산 R&D단지, 승마단지, 수출형 유리온실, 한우 번식우단지, 종자연구복합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공사에서는 에코팜랜드에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에코팜랜드가 완공되면 향후 연간 144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1조1천억원의 생산유발, 4천 4백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9천2백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쌀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이 결합된 시범단지가 성공모델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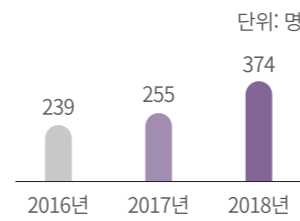
— 에코팜랜드 조감도 —



일자리 창출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6차 산업 지원, 농촌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에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입사원 채용 —



공공분야 좋은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 증가와 현장부서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37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농어업인 자녀, 농어촌 거주자 별도전형으로 142명을 채용하였고, 이전지역 인재채용을 2017년 20명에서 2018년에는 4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양성평등채용비율을 20%로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2017년 79명 대비 2018년에는 119명 채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 거주자 및 지역인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사회형평적 채용을 이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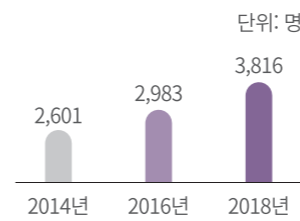
또한 공사 보유시설에 지역농어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감시원 7,65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기반시설물 감시 및 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만금 인접 지역주민 1,757명을 고용하여 공유수면 불법행위 감시, 무단사용 감시,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2018년 적극적인 정책사업 예산집행을 통해 민간 부문 취업유발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공사가 시행한 사업인 농업SOC조성사업 등 생산기반사업, 농업용수관리 사업, 지역개발사업, 기타 부대사업과 공사 자체사업인 신재생에너지개발, 새만금산업단지개발 등 투자를 통해 민간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총 2조 4,683억원 수준입니다.

사업분야에 적합한 취업유발계수(한국은행 기준)를 적용 시 34,376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 청년농업인 육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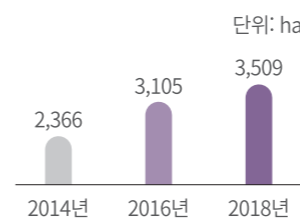


2030세대 등 청년농 농지지원을 통한 미래 핵심농업인력 육성

공사는 농진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지-자금-컨설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지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농 최우선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청년창업농, 2030 세대를 위해 농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면적 한도를 5ha에서 6ha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본부, 지사별 청년창업농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관리카드(농지확대 계획, 지원이력 등)를 작성해 DB화 하는 등 맞춤형 농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 농업인 3,816명에게 3,509ha농지를 지원하여 핵심 농업 인력으로 키우고 있고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을 1만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해외인턴십 확대 시행

공사는 농업토목학과 등 공사 사업분야와 밀접한 관련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하여 여름 방학기간 동안 해외기술용역사업 현장에서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5개 대학교, 5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여 인도네시아 다목적댐 건설사업, 주재사무소, 필리핀 소류 저류시설 건설사업, 미얀마 개발사업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1개월간 파견 근무를 제공하였고, 진로탐색 기회 및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가 양성

농어촌지역개발분야 자격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취득자 양성을 통해 지역개발 분야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농어촌개발건설턴트 44명과 농어촌퍼실리테이터 38명을 배출하는 등 총 82명의 자격지원자를 양성하였고, 2018년도에는 농어촌개발건설턴트 25명과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27명을 배출하여 총 52명의 자격지원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개발 전문가를 양성하여 민간부문 자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 민간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신뢰도와 정부간 협력관계가 중요한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민간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사 최초로 중동지역(이란)에 진출하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ICT기반 스마트물관리시스템사업'등을 수주하였고, 2018년에는 중소기업체와 함께 캄보디아 '반테민체이 관개개발사업'등 6개 해외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하는 등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민간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농업환경 여건 조사 지원을 위해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회의'개최, 전문가-조사비 지원, 정보교류 및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농기술 및 농기계 설비점검, 기업간담회, 현장설명회 등 중점 진출 지역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기술·법률·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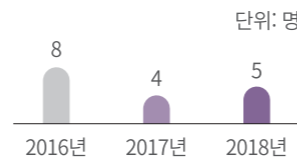
아울러, 30개 이상의 민간-공사간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의 개척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한 '사내스타트업 조직'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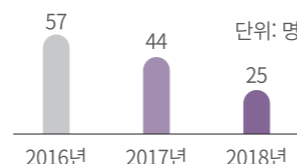
공사는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내 스타트업 조직'을 조성하여 공사 내부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 사내 스타트업 제도 설계를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제도도입을 위한 절차, 시범운영계획, 성과보상 방안 등 '사내 스타트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내벤처 유형은 내부창업방식의 형태로 운영하고, 별도의 사무공간과 경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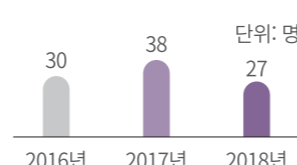
— 해외 인턴십 현황 —



— 농어촌개발건설턴트 자격취득 —



—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취득 —



—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



상생·협력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사보유 기술 및 자산을 공유하여 민간기술 이전, 실험시설 공유 등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농업관련 기관간 협약체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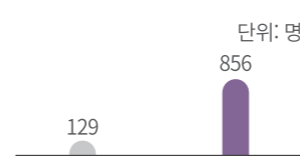
농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공동 추진

2018년 공사는 농업 유관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분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공사와 농식품 유통전문기관 aT, 농업정책 연구 분야의 최고기관인 KREI, 농산물재배 및 가공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전남 농기원은 농어촌 마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현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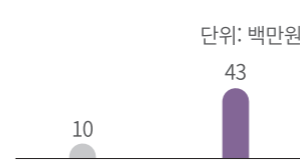
기관들은 업무협약의 첫 번째 추진 지구로 지역주민의 의지는 있으나 미활성화된 농촌 마을인 '강진 탐진사인권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공사에서 사업추진기반 조성 및 대상 마을 총괄지원을 담당하고, 버섯 생산 및 가공 기술 교육은 전남농기원이, 표고버섯 재배 컨설팅 및 생산물 판로지원은 aT가, 생산물의 시장성·경제성 분석 등은 KREI가 하는 등 분업을 통해 농촌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들은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청년들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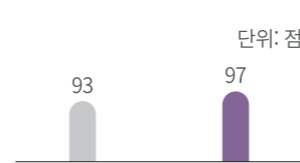
— 기관 연계 농촌마을 방문객 수 —



— 기관 연계 마을당 소득수준 —



— 기관 연계 마을 방문객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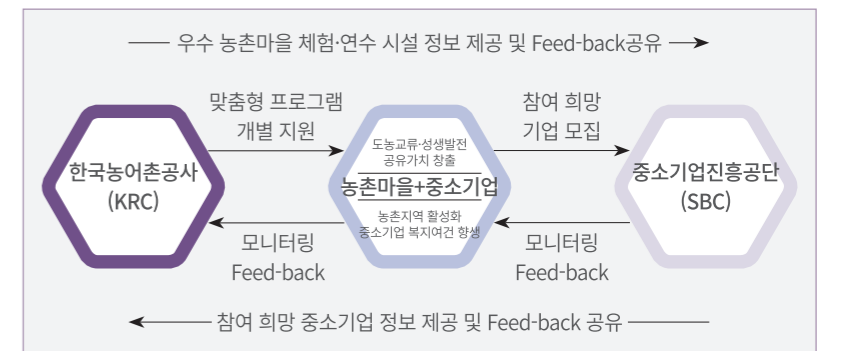


농촌마을-공공기관-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농촌마을과 중소기업, 농촌마을과 지방 공공기관 간의 상생·연계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중소기업 임직원과 가족 129명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의 체험시설을 휴양·연수 시설로 활용하도록 시범 연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중소기업 및 지방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설명회를 실시하여 참여마을과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주도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공공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공사 보유 기술의 민간전수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공사는 자체 보유한 농업토목기술을 개방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농업토목 필수 설계프로그램(4종)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에 무료로 공개하고, 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정보 프로그램을 3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고, 무상배포 프로그램 이용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절감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간 기술·교육 지원을 위해 기술지원 전담파트인 「민간 기술지원 닥터」 신설하였고, 농업토목 이론과 설계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전화응대와 방문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기술지원과 교육 노력이 민간기업의 농업토목 설계 편의성 향상과 품질의 일관성 확보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수지를 수질정화 실증시험 지원용 테스트베드 무상 제공

공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농업용 저수지에 적합한 수질개선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수질개선기술 실증시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사는 5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수질개선 신기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대상지인 5개 저수지를 제공하고 효과 분석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매출증대로 인한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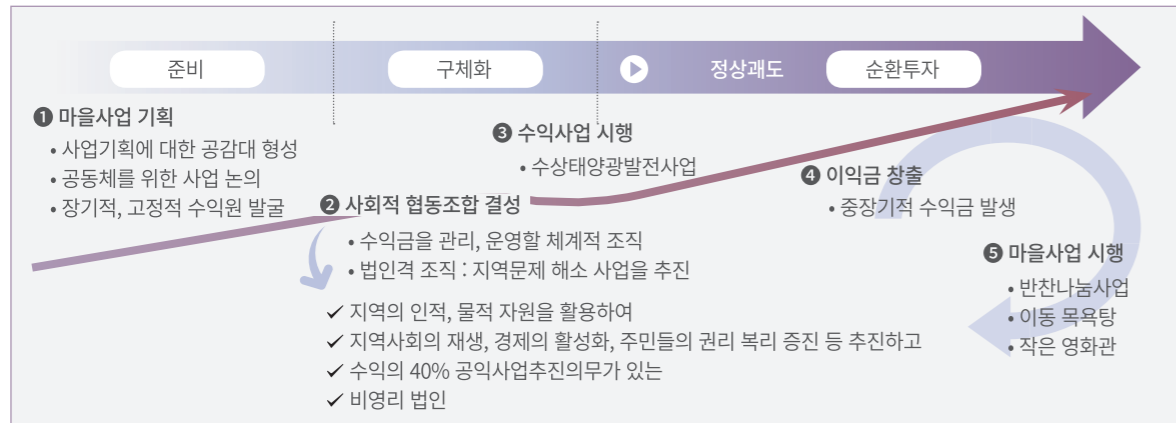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상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공사는 관리중인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어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이 직접 농업용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역마을 공익사업 및 지역재생사업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8년 공사는 사업추진 표준모델 시범적용을 위한 선도 마을 발굴을 위해 공모를 하고, 선정된 3개 시범지구에 대해 발전사업 계획·시행·운영관리 등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공익사업을 연차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촌의 자발적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UN C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선순환하는 농어촌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33 | 34

1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1 농업인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2 미래 농업의 주역 청년농 육성

- 젊은 2030세대라면?**
3,900ha의 농지 지원
- 농지취득 이력없는 청년창업농은?**
매입자금(~1ha) 및 임대(~2ha) 지원

3 농어촌 사회적 안전망 확충

- 노후 소득 부족 농가는?**
고령농의 농지를 활용해 매월 연금 지급
- 경영 위기 농가는?**
자금 지원 및 컨설팅으로 재기 유도

4 선순환하는 농어촌 경제

4 주민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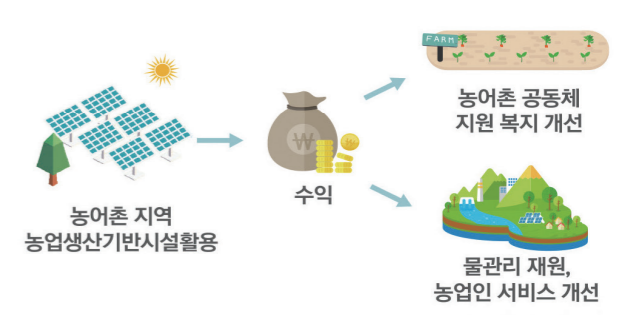


2018년 277지구 시행

5 '터' 로서의 농어촌 기능 강화



6 보유 시설물 활용으로 공동체 지원



농어촌 愛 쾌적환경

03

개발사업 및 도시화로 인해 오염된 물과 흙을 정화하여 생태계를 회복하고, 마을경관 및 환경은 깨끗이 보존하는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농어촌을 만들어 갑니다.

- 물 愛 가치 -



- 땅 愛 가치 -



- 녹색성장 -



물 愛 가치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화 복잡화된 재해 상황에 대비해 Smart 수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간 물잇기



사전 가뭄대응체계로 전환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한 공사의 핵심적인 물관리 추진방향은 물관리 과학화, 용수이용 패러다임 전환, 다양한 수원공 확보를 통한 농어촌의 물 복지실현에 있습니다.

우선 물관리 과학화는 ICT와 IoT 기술을 기반으로 공사가 110여년 간 쌓아온 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최근 5년간 주요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용수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물관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수확보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가뭄, 홍수, 지진 등 재해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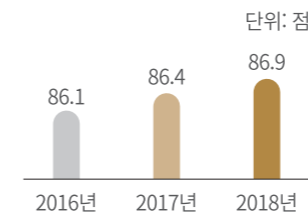
물관리 종합상황실



2017년 극심한 가뭄으로 경기 안성 금광저수지와 마둔 저수지의 저수율이 하락하자 지역 수자원현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인근 평택호의 여유 수량을 끌어오는 임시 관로를 설치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국내 통신기업과 제휴를 맺고, 저수지, 수로 등에 IoT기술을 바탕으로 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물의 도달시간과 농경지마다 공급되는 물의 양을 분석하고 가뭄과 홍수 등 재해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율 등의 물관리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여 수혜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수이용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 패러다임이 저수지 등 수원공을 중심으로 한 자연유하식(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방식) 물관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농어촌을 거대한 물그릇으로 보고 지역 내와 인근 지역 간 물잇기 등 이용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10만km(지구2바퀴 반)에 달하는 수로와 지역내 하천 등을 연결수로로 활용하여 농업용수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뭄시 생태환경 유지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만족도



다양한 수원 확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농촌용수 개발시 논 이외에도 밭, 생활과 환경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2018년 4,300ha에 대한 복합영농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산강 등 대단위간척지구 인근 지역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부분 준공체계를 도입하여 사업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밖에 가뭄 발생시에도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해 지하담 예비후보지 472개소를 조사하는 등 용수 확보 방법도 다각화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물이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지하수관측망을 활용한 지하수 공급, 정화된 하수와 배수로의 퇴수를 재이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시설유지관리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합동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각 기관의 기술력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협력기관	협업 내용
강릉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상수도 급수량 증가에 따른 생활용수 무상공급
지자체	가뭄극복을 위해 지자체 관리구역 농업용수 급수지원
기상청, 수자원공사	가뭄-홍수피해 저감 및 국가적 물문제 공동협력-연구개발 기상관측자료(지상, 해양, 지진) 및 예보자료 수신 및 문자발송 公社 시설 및 계측자료(저수율, 수질, 가뭄, 홍수, 염도 등) 공유
수자원공사	댐-저수지 연계 운영방안 수립 기간 간 시설물 교차점검 시범대상지정 및 계획수립('19년 실시)
SKT	수자원관리 원격계측의 안정적 구축 및 신기술통신망 도입·운영
지역사회단체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단체와 전국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재난대응

깨끗한 농어촌용수 확보로 국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

공사는 5년 이상 수질관리기준(IV등급, TOC 6.0mg/L) 초과 저수지에 대해 환경친화적 인공습지, 침강지, 물순환장치 설치 등 수질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류유역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관리 대책사업 도입과 일시적 오염 악화 저수지에 정화시설 개선, 녹조제어장치 설치 등 단기 수질개선대책 추진(13억)하는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으로 준공지구의 수질을 관리기준을 만족시키는 5.6mg/L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의 경우 설계, 시행 전 주변시설 농가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용수의 수량과 수질 등을 따져 농업용수 사용료를 농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농가가 지하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필요가 없고 공사가 공급하는 청정용수로 고소득 작물의 재배가 가능해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정(우물), 지하댐 개발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

지하수는 증발로 인한 손실이 적고 가뭄에도 비교적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상 관측 이후 최저수준의 강수량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에 공사는 긴급 대책 중 하나로 지하수 관정 83공을 개발하였습니다. 덕분에 하루 12,500여톤의 물을 마른 저수지나 농경지에 직접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전국에 총 1,536공의 농업용 관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루 약 42만톤의 농업용수를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댐은 땅속에 물막이 벽을 세워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확보하는 시설입니다.

지하댐으로 확보한 지하수는 집수정을 통해 직접 활용하거나 인근의 저수지 등에 끌어 담습니다. 충남 옥성 경북 상주, 포항, 전북 정읍 등 총 4개 지자체에 5기의 농업용 지하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하루 1만6,200만7,900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하댐은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새롭게 저수지를 만들 때 생기는 수몰로 인한 환경훼손과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지하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지하댐 정밀조사 후보지 70지구를 선정하고, 2018년부터 한국형 지하댐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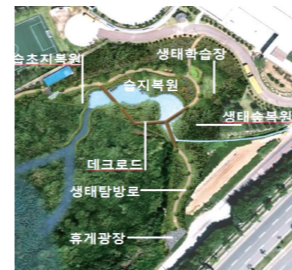
지하수 개발(관정)



땅애가치

한국농어촌공사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저수지의 생태환경복원 및 경관관리로 자연과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지하수·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오염된 농경지 조사와 토양오염정화를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과 청정 국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도촌지 생태습지재생사업 —



도시화로 훼손된 저수지 생태환경 복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훼손된 저수지 주변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저수지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주민에게 교육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2018년에는 광주시 도촌동 일원(11,821㎡)에 생태습지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정화습지를 통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습지를 조성하여 보금자리를 잃은 맹꽁이(멸종위기종 II급)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주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적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등 자연과 지역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사에서 진행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탐정-예당 저수지가 극심한 가뭄으로 메말라 '귀이빨대칭이(멸종위기종 I급)'가 폐사되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공사는 수심이 깊은 저수지 내측을 대체 서식지로 선정해 '귀이빨대칭이'를 이전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개체수 보전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2014년 수원에 위치한 일월저수지가 도시화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위협받았을 때에는 '수원청개구리'를 복원 목표종으로 선정하여 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공사는 농어촌의 귀중한 자산인 저수지의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화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농어촌 생태계를 복원해서 예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맹꽁이(멸종위기 II급)	저어새(멸종위기 I급)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 II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부동산개발(수원시) 부지 • 대체서식지 조성(안산시 농어촌연구원 습지, '16년 생태복원) * 대체서식지 면적 : 4.7ha • 122개체 이주('18년 7~10월) • '21년까지 서식현황 등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산업단지(3공구) 부지 *개체 확인 : 144마리 • 보호방안 마련 조사-연구 시행 (환경청,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 공사구간 내 가림막 설치(100m) • 합동 모니터링(월 1회, '17~'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산업단지(5공구) 부지 *개체 확인 : 46마리 • 발견 구간 보호구역 설정(30ha) • 해당 구역 매립공사 중지(2개월) • 합동 현황 조사(환경청, 시민단체, 전문가)
<p>맹꽁이 포획과 대체서식지 방사</p>	<p>시민단체 참여 전문가 자문회의</p>	<p>검은머리갈매기 번식지 30h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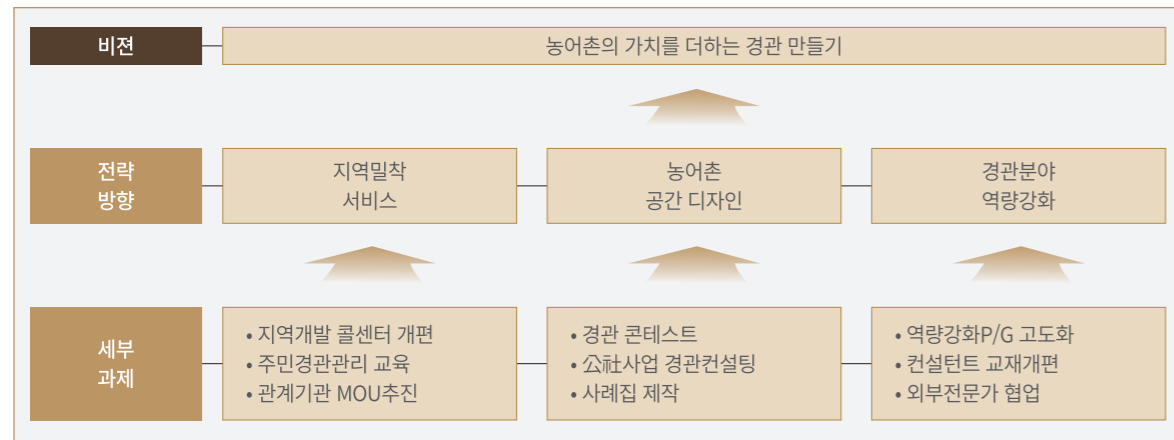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을 정화하는 지하수토양정화사업 추진

공사는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청정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을 복원하는 데는 정밀한 기술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대규모 지하수토양정화공사인 ‘부산 문현지구의 오염정화사업’의 경우 2000년~2003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선별하여 미생물을 뿌리거나 기계로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반복하여 깨끗한 토양으로 정화하였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문현지구에는 현재 고층빌딩이 즐비한 금융단지가 들어서 부산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사는 전국 46개소에서 대규모 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7년 서울 녹사평역 오염지하수정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공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소중한 수자원을 깨끗하게 지키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경관협의제도 운영 및 주민참여형 경관관리 지원

공사는 경관의 가치가 재조명됨에 따라, 사업 및 시설물 30지구에 대한 경관적 가치를 사전에 검토 협의하여 농촌경관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경관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경관관리 필요성 및 계획관리기법 등을 교육하여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주민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선진 농어촌개발기술 및 경험 전파를 위한 개도국 지원

빈곤퇴치 및 식량문제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공사의 농업·농촌개발 경험과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댐, 저수지, 방조제, 물관리, 관개시설, 지하수 개발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농촌개발 등의 관련기술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들은 기술도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이란에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기술을 수출하였는데, ICT기술을 기반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홍수관리 예측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수주 배경은 2015년 태국 뻘란뿌리 원격관측 물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의 성공과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자체설계와 시공이 가능한 공사의 인력구성, 개도국과의 지속적인 물관리 기술교류로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존적인 사업구조와 주력사업 수요감소로 새로운 시장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해외사업을 공사의 미래 신성장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엘살바도르 현지연수



녹색성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친환경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원 규명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KRC 기후변화 적응대책



농업·농촌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의 대책 마련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분석서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난 30년간 연평균기온은 1.2°C 상승하고 연강수량은 계절적, 지역적 변동이 매우 커짐에 따라 가뭄과 호우의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시 21세기 후반에는 현재보다 평균 기온이 4.7°C 상승할 것이며, 폭염일수는 현재 연간 7.3일에서 28.5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우일수는 증가하는 반면, 무강우지속기간도 증가하여 가뭄과 호우의 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에는 수자원 이용의 취약성이 높아져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실태조사 마스터플랜



공사는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KRC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재해 예방과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수공급기반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 수리시설 안적대책 강화, 배수개선 확대를 통한 타작물 재배기반 확대, 농업용수 수질개선, ICT기반의 과학적 물관리 시스템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공동으로 ‘농업·농촌 기후변화 실태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가뭄, 호우의 취약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반영하여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가사업의 기후영향평가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수상태양광 설치현장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공사에 소유하고 있는 유희부지 및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기능·경관 유지, 환경 및 안전 등의 가치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의 지역 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비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농어촌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농어업분야 에너지보급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설치 농가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기존유류 대비 약 50~60%정도 난방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확량 증대 및 CO2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방풍림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은 새만금 농업용지(5공구) 17ha에 해송, 메타세콰이어 등 8종, 약 16만 1549본을 신규 식재하는 사업으로 농업용지의 해풍 피해 방지, 비산먼지 및 비염 등의 재해방지와 더불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원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재가 완료되는 18년말부터 매년 약 125만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해 2048년까지 총 3,750만톤의 온실가스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이 확대되어 새만금 농생명용지 313ha에 방풍림이 조성될 경우 향후 30년간 약 6만 4000톤의 온실가스 흡수와 약 12억원의 배출권 판매수익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KRC-APEC 기후센터, 기후변화 대응방안 협력

2017년 공사는 APEC 기후센터와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는 이번협약을 통해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APEC 기후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상이변으로 인해 찾아진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기후 친화적 농어촌 건설,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공동사업 추진, 국제 연수프로그램 개발, 기후정보 상호협력 및 전문가 교류 등입니다. 농업선도기관인 공사와 기후변화 전문연구기관인 APEC 기후센터와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안전한 농업·농촌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농림축산식품부-한전,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 체결

2018년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한전과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와 공사가 추진중인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원에 농가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사업비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면, 공사는 농업인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한전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만금방조제



APEC 기후센터 업무협약



에너지이용효율 업무협약



전 세계적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 평균기온
평년 12.5°C 보다
0.6°C 상승

전 지구 평균기온
20세기 평균기온
14°C보다 0.84°C 상승

기후변화는
기상재해를
불러옵니다.



2100년

연평균 기온 상승
현재보다
약 5.7°C 상승

해수면 상승
현재보다
20.9cm 상승

기후변화가 지속된 2100년의 우리나라 모습을 그려볼까요?



기후변화,
피할 수 없다면
대응하라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에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리시설 내진 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실태 및 영향과
취약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충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농어촌愛 행복문화

04

고령화와 복지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다양한 봉사활동과 재능기부, 생활안정 등을 통하여 농어민이 더욱 행복하고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행복충전 -



- 지역활력 증진 -



- 소통채널 확대 -



행복충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 —



세계 최초로 고령농을 위한 최고의 복지 ‘농지연금’ 지원

통계청의 2018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44%를 넘어섰습니다. 농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고 있고 2018년 6월 농지연금 누적가입이 10,000건을 돌파하였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가입 증가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지급액은 약 90만원이며,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위기농가의 희생 지원

일시적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귀결되는 승자 독식의 사회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인은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최장 10년까지 임차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공사는 농업인이 임차 기간 중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고, 지역농협과 농업인과 긴밀히 협조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재무컨설팅 및 환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부채농가의 희생지원 확대와 환매율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공헌 브랜드 ‘행복충전활동’을 통한 체감형 복지 제공

공사의 주요고객인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공사의 임직원이 함께 해나가는 공사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인 ‘행복충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1만 6천여명의 연인원이 참여하는 ‘행복충전활동’을 통해 2018년까지 총 50만 4천여명의 농산어촌 주민에게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행복충전활동’은 행복키움, 행복가꿈, 행복나눔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복키움’은 지역개발, 농어촌 환경 보전 등 공사의 핵심역량을 활용해 농어촌의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이고, ‘행복가꿈’은 영농지원, 재능기부 등 지역상생을 통해 쾌적한 농어촌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나눔’은 의료, 건강 등의 농어촌 소외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결식 우려가 높은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에게 김치를 지원 하는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갔습니다. 그 동안은 연말에만 진행되는 일회성 활동이었지만, 김치 등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많아 2017년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행사로 확대하였고, 공사 임직원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 총각김치 등 계절별로 김치를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지역 농산어촌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행복 방충망 나누기’를 처음 실시해 농어촌 복리증진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주택을 방문해 낡은 방충망을 교체하고 주변 정리도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적은 비용으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사는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한 진짚상 차려드리기’, 농어촌의 노후화된 집을 무료로 수리하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치매극복을 위한 유유운동’, 도내 대학교와 연계한 ‘Young-one한 농어촌 행복충전활동’, 농번기 농가 일손돕기 활동, 헌혈 등 지역 사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 강좌 운영

2018년 공사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6개 지역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식 함양을 위한 사이버 콘텐츠 제공 및 취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 등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 43명에게 공사 채용제도 설명과 최근 입사한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취업준비 노하우 공유, 실전 면접 팁 등 실질적으로 취업 성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경제 등 7개 분야 4,300편의 지식 콘텐츠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2018 취업역량 강화 프로젝트’도 실시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어린이, 여성,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오픈강좌를 추진하였습니다.

안산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추석명절 체험 활동과 도서를 지원하였고, 여성을 위한 ‘행복한 나 찾기 토크콘서트’를 추진하여 일·가정 양립과 자존감 회복 등에 대한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령층 대상으로 은퇴자 재무설계 강좌와 돋보기 제공 등 참여 대상자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 행복충전활동 브랜드 —



— 행복한 진짚상 차려드리기 —



— 2018 농촌재능나눔캠프 —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

재능나눔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재능보유자가 재능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 시작은 무료 법률상담을 하던 ‘프로보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료 봉사의 개념이 이제는 연예인들의 ‘목소리 기부’, ‘불우이웃 위문 공연’ 등 다양한 재능을 나누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촌재능나눔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두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있는 범국민적 차원의 재능나눔 활동입니다. 2018년까지 608개 단체 및 102,644명의 재능나눔인이 농촌지역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하고 있고, 작고 소소한 재능에서부터 특별한 경험, 특수한 전문기술까지 농촌사랑을 실천할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과 재능을 받고자 하는 농촌마을이 ‘스마일재능뱅크’에 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렇게 등록된 정보를 공사에서 운영중인 ‘스마일재능뱅크’에서 매칭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농촌 재능나눔을 통한 재능 나눔인들의 다양한 재능은 나눔을 받은 농촌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한편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에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도시와 농촌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사회통합으로 나가는 토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재능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

구분	세부 참여분야	
희망찬 마을	마을·발전	마을홍보(SNS 및 디자인), 문화요순지킴이, 지역공동체 설립, 체험·관광상품 개발, 전문상담(법률 등), 마을시설 및 기계수리, 마을발전 기획 및 컨설팅
즐거움 마을	문화·여가	레크레이션, 요리교실, 공연, 웃음치료·건강교실, 만들기·취미활동, 나들이·여행,레저스포츠
배우는 마을	교육·지도	컴퓨터교육, 방학캠프·체험활동,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방과후활동, 카메라·영상교육, 예체능교육, 주민역량교육, 학습지도, 아동돌봄·교육, 독서·논술지도, 스마트폰교육, 아동·청소년상담
행복한 마을	생활·복지	사진촬영, 어르신·장애인 돕기, 벽화그리기, 다문화가정지원, 이발·미용, 심리상담·월다이, 주거환경개선
건강한 마을	의료·보건	무료검진·진료, 한방진료·수지침·이혈, 물리치료·건강마사지, 응급처치교육, 식품·영양관리, 대체의학, 기체조, 소득·방역·위생
풍성한 마을	농업·지원	축산·수산·임산, 상품디자인, 안전·품질관리, 친환경·유기농, 재배·수확·수확 후 관리, 병충해·질병관리, 창업상담·법인설립, 판매·홍보, 상표·특허출원

— 업무용 무상공유 차량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운행 업무용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2018년 휴일 미운행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무상공유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외부모가정 등 농어촌지역의 교통·이동 취약계층에게 주말과 공휴일에 업무용으로 운행하지 않는 사업단 보유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차량은 1년 이내 출고된 소형 화물트럭(1톤, 5인승)으로 대인·대물배상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각종 통행료, 주유비, 주차요금, 범칙금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공문 시행과 읍·면 담당자 협의 및 차량 무상공유 CI 부착 등 홍보를 하였으며, 공사가 보유한 공공자산의 대국민 공유를 통해 영암군 및 해남군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게 농산물·농자재 운반, 원거리 이사 등 총 7건의 무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공유서비스 플랫폼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신모형을 정립하였고, 공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2018년 사회적 가치 및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 증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에 소득이 있고, 사람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사 보유시설을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 편익 증진과 침체된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공동체 활력 창출을 위한 농촌공동체 회사 육성·지원

지역사회 일자리·소득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공동체 회사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농촌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농촌공동체 회사를 육성해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거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2018년 그 수는 26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그간 농촌공동체회사 중 우수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7개팀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법률/법무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와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실제 농촌공동체회사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동체 회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케팅, 경영전략 등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형 유통채널 진입, 사업구조 다각화,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편익 증진을 위한 보유시설 개방

공사는 2018년부터 지역기업의 사무공간과 주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110여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의 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시설이나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개방·공유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주민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8년 공사 보유 공공자원 전수조사를 통해 보유시설 현황과 개방여부를 조사하고, 국민의 사용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정립과 공공자원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당, 회의실, 업무용 차량 등 113개 공유 서비스를 연중제공할 수 있었고 2018년 강당 등 시설물 개방을 통한 행사지원 15회, 사회적 약자 업무용 차량 공유를 80회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2018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 GM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전북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과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피해 지역주민 1,757명을 고용하여 공유수면 불법매립, 무단 사용행위 감시, 환경관리 등 유지관리 업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새만금 유후부지 920ha에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군산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악공연 등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확인 필요?)

아울러,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함에 따라 공사는 잼버리대회 부지(884ha) 매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지 매립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국제 행사의 차질없는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는 매 4년마다 개최하는 전세계적인 야영대회로, 약 5만명 이상 청소년과 지도자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북연구원의 ‘2023 세계 잼버리 유치효과와 추진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회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1,198억원의 생산, 1,098명의 고용, 406억원의 부가가치가 국가차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장 협의체 참여

빛가람 혁신도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에 따라 탄생된 혁신도시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유치한 신도시입니다. 이는 혁신도시를 거점 도시로 육성하여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현 정부 국정기조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는 광주·전남 공공기관장들이 정주여건을 조기에 조성하고, 혁신도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공동과제로 빛가람 페스티벌 개최, 로컬푸드와 친환경 농산물의 공공급식 이용 등을 협의하였고, 지역특화사업인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도 중점사업으로 육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및 이전공공기관 간 사회공헌활동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전남은 상생 발전위원회를 열어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소통채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민 등 국민에게 저수지 저수율, 농촌관광, 농지은행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사에서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개방하고 농어민에 대한 공공복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쉽게 농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통합포털」로 개편

2018년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포털」과 「농지연금포털」을 통합하여 「농지은행통합포털 <http://www.fbo.or.kr>」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일원화된 서비스 창구를 통해 농업인들은 보다 쉽게 농지와 관련된 종합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건에 맞는 농지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을 통해 농지내농기(임대/매도)를 하거나, 원하는 농지를 지역/가격/면적 등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하여 관심매물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고, 즉시 농지를 구하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원하는 농지가 없을 경우 맞춤추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개편으로 예비 농업인의 농지지원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공사의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농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령·은퇴농도 지사를 방문할 필요없이 농지은행통합포털에 접속하여 농지연금 예상금액을 조회하거나 농지연금 상품에 가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필지주소, 면적 등의 단순정보에 더해서 항공사진 기반 지도서비스, 토지이용현황, 토양정보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종합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농지의 가격과 거래 동향을 지역별·지목별로 제공하고 있어서 농업인이 농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해당 농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털을 개편한 이후, 월평균 3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고, 회원가입은 12.6배(127명/일)로 개편전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지종합정보를 담은 포털을 매개로 수요자들과 접하고 사업을 지원하게 됨으로 집적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향후, 실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농민과 도시민을 위한 농어촌정보 포털 서비스 제공

농어촌 관련 기관에서는 각각의 시스템을 통해서 농어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농지은행, 농촌용수, 지하수 등 사업분야별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중이며, 누구나 접속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농어촌 정보를 찾을 경로는 많지만 개별적으로 찾아야하고 정보는 정보간 융합 분석을 통해 더 큰 가치와 활용을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농어촌알리미’를 통해 각 기관별 그리고 공사 내에서도 사업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첫 구축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중이며, 현재 공사에서 운영 중인 9개 사이트와 11개 외부기관의 정보를 통합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알리미 서비스 현황]

용수시설	귀농어촌	농촌체험	농업지식	공사	지도정보	커뮤니티
농업용수	농지/농촌	관광, 체험	수리역사, 간척	계약정보, 사용	공간정보	게시판, 공통 농촌직업, 정보
용수시설	진집, 제도	숙박, 음식	농업교육, 사진	허가, 압찰매각		
재난안전	농업통계	쇼핑	영상, 용어사전	공사사업, 안내		

— 일하는 방식 대통령상 수상 —



스마트 보상시스템 고도화로 공익사업 적기 실현

공사는 양·배수장,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 공공기관 최초로 ‘ICT 지능형 전자수용재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와 연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용재결 소요시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적기에 보상해 지가상승분 등 추가 관리비용을 15억원 정도 절감하는 등 업무혁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사는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지가상승분 등 연간 1,013억원에 달하는 추가 관리비용에 대한 국고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확산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와 협력해 토지 소유자의 보상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공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국민께 신뢰받는 일 잘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모바일 가뭄정보 제공으로 안전영농 서비스 제공

2018년 공사는 농업에 관한 가뭄 정보 제공을 위해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였습니다. 농업가뭄 예·경보,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등의 기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하여 저수율, 농업 가뭄 예측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위치에 맞는 지역별·시설별 가뭄정보(강수량, 저수율 등)를 제공하며, 급수상황을 알려주는 SMS 전송 기능과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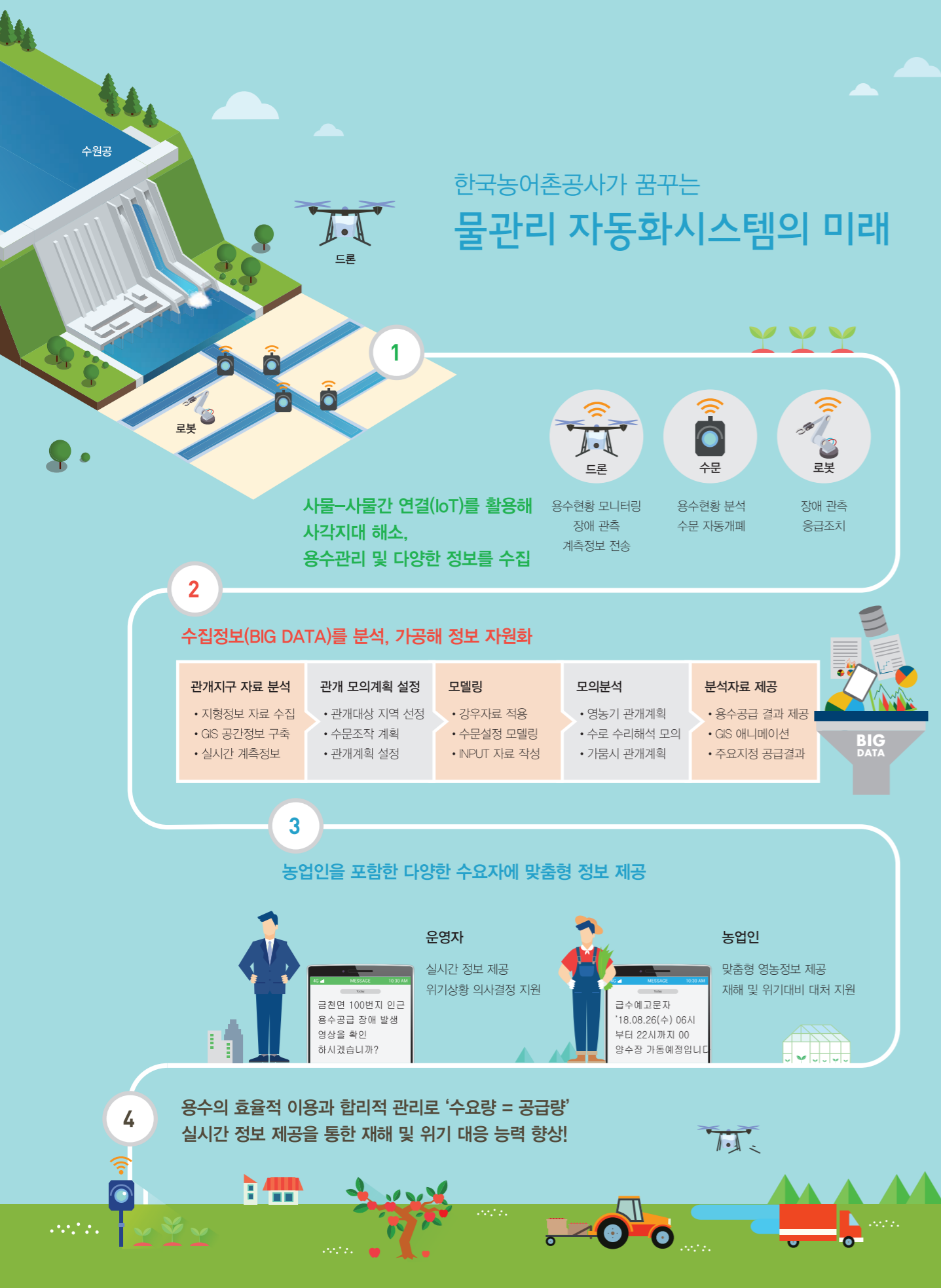
서비스 주요내용						
공지사항	시설정보	기상정보	저수율정보	가뭄정보	용수공급정보	절수대책정보
중요사항공지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제원	강수량 현황	지역저수지위치, 저수율 등	가뭄상황, 예·경보	급수상황 예고	가뭄상황별 행동요령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발굴 및 확대

4차 산업혁명에는 거의 모든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드는 융합 기술에 근간한 디지털 혁명으로서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등이 있습니다. 미래 농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을 통한 ‘질 높은 정보의 활용’이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경쟁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는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농지분야, 농어촌 체험, 용수관리 부문에 대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8종, 2018년에는 20종을 개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는 공사에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2017년 2,980건, 2018년 3,593건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개방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데이터 대상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꿈꾸는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의 미래

1 사물-사물간 연결(IoT)를 활용해 사각지대 해소, 용수관리 및 다양한 정보를 수집

- 드론**: 용수현황 모니터링, 장애 관측, 계측정보 전송
- 수문**: 용수현황 분석, 수문 자동개폐
- 로봇**: 장애 관측, 응급조치

2 수집정보(BIG DATA)를 분석, 가공해 정보 자원화

관개지구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정보 자료 수집 GIS 공간정보 구축 실시간 계측정보 	관개 모의계획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개대상 지역 선정 수문조작 계획 관개계획 설정 	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우자료 적용 수문설정 모델링 INPUT 자료 작성 	모의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기 관개계획 수로 수리해석 모의 가뭄시 관개계획 	분석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수공급 결과 제공 GIS 애니메이션 주요지점 공급결과
---	--	---	--	---

BIG DATA

3 농업인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자에 맞춤형 정보 제공

운영자 실시간 정보 제공 위기상황 의사결정 지원	농업인 맞춤형 영농정보 제공 재해 및 위기대비 대처 지원
---	--

4 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관리로 '수요량 = 공급량'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재해 및 위기 대응 능력 향상!

UN Global Compact 원칙 이행

원칙
인권(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Labor)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This is our Communication on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supporting broader UN goals.

We welcome feedback on its contents

UNGC의 지속가능경영목표

번호	목표	엠블럼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농업을 증진한다.	
3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한다.	
4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할을 강화한다.	
6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관리를 보장한다.	
7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	
8	지속적, 포괄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 증진한다.	
9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11	안전한 도시와 지속가능한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14	바다,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15	육상생태계, 산림 및 사막화를 방지하고 생명다양성 손실을 방지한다.	
16	평화로운 사회를 촉진하고 포용적 사법제도를 구축한다.	
17	이행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Appendix

수상실적

년도	수상명	훈격	수여기관
2014	한국관광의 별 “휴가문화 우수기관” 선정	장관상	문화체육부
2014	2014년 “재해대책 우수기관” 선정	대통령상	안전행정부
2014	2014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공공부문 최우수상	장관상	미래창조과학부
201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8년 연속)	인증	기획재정부
2014	정부3.0 유공 기관 표창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
2015	국가생산성대상(고객만족부문)	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
2015	2015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장관상	고용노동부
2015	2015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	여성가족부
2015	2015 재해재난관리 유공 국민훈장	대통령상	행정자치부
2016	국가기록관리 유공 표창	장관상	행정자치부
2016	공공기관 정부3.0 우수기관	인증	행정자치부
2016	나눔문화 확산 및 행복한 사회 건설 기여	장관상	보건복지부
2016	캄보디아 공무원 인적개발역량강화 유공 표창	장관상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2016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국무총리상	인사혁신처
2016	농촌활력 활성화 분야	도지사상	전라북도
2016	내부감사 혁신상		한국감사협회
2017	내부감사혁신 최우수상		한국감사협의회
2017	2017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대통령상	농림축산식품부
2017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장관상	국토교통부
2017	재난관리평가 우수등급 인증	인증	행정안전부
2017	2017년도 연구개발투자 우수 공공기관	장관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2016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	행정자치부
2018	2018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	국무총리상	여성가족부
2018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및 협업" 우수사례	대통령상	행정안전부
2018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은상	대통령상	산업통상자원부
2018	국가안전대전단, 물놀이 안전관리 정부포상	장관상	행정안전부

단체가입 현황

년도	가입협회	가입 동기
1957	한국농공학회	농업토목 관련분야의 정보 수집 및 기술교류
1980	한국능률협회	최신 경영정보자료 수집
1980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	관개배수, 홍수조절 등에 대한 기술정보 교류
1995	한국생산성본부	고객만족 및 서비스 관련 정보수집
2000	한국품질인증센터	품질환경시스템 정보교환
2000	한국방재협회	방재관련 연구자료 및 정보수집
2003	대한지질공학회	응용지질 및 환경분야 협력
2003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환경복원사업분야 협력
2004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품질분임조 관련 정보수집
2006	토양오염조사기관협의회	토양오염조사기관 위상정립 및 협력
2007	UN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2009	세계물위원회	세계물포럼 지원 및 정보교환
2012	해외농업개발협회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수행

경제적 성과

경제가치 창출의 중요성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예산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로 정책변화 등 외부충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경영의 자율성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중장기적으로 경영자립도를 키워나가기 위하여 사업기능을 효율화하고, 어촌·수산분야 및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요약 재무정보

구분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억원	37,177	37,770	37,165
당기순이익	억원	1,700	277	-617
자산	억원	103,353	108,831	106,646
부채	억원	82,082	87,511	85,838
자본	억원	21,271	21,320	20,807
부채비율	%	385.9	410.5	412.5
순수부채*비율	%	26.5	27.6	29.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사회적 성과

구분	세부 항목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고객	고객만족도	점	81.5	85.9	85.8
	농업인만족도	점	86.1	86.4	86.9
임직원	비정규직 전환	명	55	95	96
	여성직원 비율	%	17.9	15.1	17.3
	직원 직무만족도	점	82.6	83.8	85.8
	인당 평균 교육시간	시간	82	85	89
협력업체	인당 평균 교육예산	천원	901	903	908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비율	%	83.17	83.31	80.21
	여성기업 구매액 비율	%	8.27	11.71	7.76
	장애인기업 구매액 비율	%	1.92	1.35	2.33
지역사회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급	보통	양호	우수
	사회공헌활동 금액	백만원	1,666	1,378	1,680
	인당 사회공헌 참여시간	시간	8.70	9.06	9.40

환경적 성과

구분	세부 항목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수리안전달률	%	60.5	60.9	61.7
	농업용수 수질오염율(T-P율)	%	95.9	96.9	96.6
	주민자율 수질관리프로그램 운영	명	1,279	946	1,121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확대	태양광에너지 연간 발전량	MWh	14,948	21,638	37,620
	소수력에너지 연간 발전량	MWh	26,547	17,770	31,554
	풍력에너지 연간 발전량	MWh	5,314	7,847	7,524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tCO2	20,666	20,863	33,862
농어촌 환경 개선	농촌 지하수관리 추진	지구	19	18	20
	해수침투조사 수행	지구	9	9	9
	농경지 오염실태조사	지구	159	49	41
친환경 경영	친환경 제품 구매실적	백만원	43,295	39,557	41,915